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노려라 월드컵을 통해 소비확대 이어지길...

최근 육계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닭고기 업계는 6월에 개최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한껏 기대를 갖고 있다. 닭고기 업계는 과거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아시안게임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나름대로의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치킨 시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끌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내 토종 브랜드인 '페리카나'가 선두주자로 등장하였고, 이후 KFC, 파파이스, BBQ, 교촌치킨이 서로 경쟁하듯 매장을 늘려갔으며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농협이 '또래오래' 등이 가세하면서 다양한 소비의 패턴을 이끌어 오고 있다.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하면서 닭고기가 톡톡히 재미를 봤다. 당시 닭고기는 구제역으로 인한 대체소비, 여름 성수기와 겹쳐 월드컵이 개최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각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32개 국가가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축구구를 통한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6월 18일 오전 7시에 러시아와, 23일 오전 4시에 알제리와, 27일 오전 5시에 벨기에와 조별예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이처럼 경기가 새벽시간에 펼쳐지기 때문에 예년의 월드컵 만큼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어떻게 특수로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대학생을 겨냥한 소비층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한국경기가 있는 주요 시간대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는 축구팬들도 소비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대한민국 선수들이 16강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경우에는 그 여파가 오래 가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재시청하며 기

뿔을 누리는 층이 많아져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년은 시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으며, 닭고기 시장도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한 소비확대로 업계가 안정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닭고기, 계란 자조금의 현주소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을 때

양계의무자조금이 발족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순조로운 향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고병원성시가 양계업계를 강타하는 바람에 각종 모임 등이 취소되면서 사업계획수립 및 자조금 거출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어렵게 구성된 닭고기자조금 대위윈도 참여단체들의 지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모처럼 하나로 뭉쳤던 닭고기업계가 다시 와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습책으로 각 단체를 불러 발전방안을 조율하고 나섰지만 6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계육협회가 다시 자조금 동참의 뜻을 밝힌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확정 및 각종 활동을 위해 관리위원장 선출은 물론 각 단체들간의 화합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계란자조금은 금년부터 농가 거출금을 늘려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시발생으로 인한 매몰처분으로 거출금액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달 사업계획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면서 본격적인 자조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계란자조금 사업은 총 27억을 통해 소비홍보, 수급, 교육, 조사연구 등 다양한 계획을 내 놓았다. 올해 사업에는 식용란에서 가공란까지 다양화하여 소비확대를 꾀하고, 국내산 100% 자급률 유지를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수급안정의 필요한 인프라구축과 그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노계에서 수당 50원을 거출키로 한 것을 금년부터 100원으로 올려 사업의 파이를 키우려던 것이 아직 성숙단계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지난해 거출율이 79%에 그친 것이 거출금인상에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소한 90% 이상의 거출율로 끌어올린 후 인상요인을 검토한다는게 계란자조금 사무국측의 입장이지만 농가들이 자조금에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만든 양계의무자조금이 진정한 자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양계**